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10.): 유럽

유럽 농업·농촌·식품 동향

1 유럽 농촌의 장기적 비전¹⁾

- 유럽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이 논의됨.
 - 유럽 농촌의 장기적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, Rural Vision Week(2021년 3월 22~26일)을 개최하였고, 이를 통하여 장기적 비전 4가지를 선정함.
- [1. 미래의 디지털 농촌] 코로나19 이전에도 디지털 인프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, 코로나19의 창궐 이후,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. 농촌 지역에 유럽연합 인구의 약 29.1%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농촌으로의 디지털 인프라 공급이 필요해짐.
 - 유럽연합 의회는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1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,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, △인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, △평생 학습 기회, △상호 교환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, 시스템, 서비스, △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, △디지털 혁신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자 함.
- [2. 유럽 농촌의 미래를 위한 그린딜] 유럽 농촌은 △농촌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의 중심으로 육성하고, △농촌 생태계와 자연·문화적 유산을 보호해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.
 - 2040년까지 유럽 모든 곳에 스마트 그리드를 보급하여 100% 재생 에너지 공급을 이루고자 함. 이를 위하여 농촌 경제를 순환 경제 중심으로 바꾸고, 바이오 가스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, 수자원 관리 인프라 개선,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 등을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함.
- [3. 회복력 있는 농촌의 미래]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농촌의 보건 시스템 접근성 향상, 학교 교육 개선, 노동 시장의 취약성 해결 등을 추구하고, 농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교통을 개선하여,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,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여 농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.

1)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“EU RURAL REVIEW No 32. Long-Term Vision For Rural Areas”(2021.7.28.)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enrd.ec.europa.eu/>)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10.): 유럽

■ [4. 공정하고 포용적인 농촌의 미래] 빈곤이 사회적 배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. 사회적 배제는 기본권 보장, 사회적 통합에서 소외, 참정권 배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, 농촌에서는 빈곤, 지리적 으로 먼 거리, 인구구조, 노동 시장 참여 등의 여러 이유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 을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.

- 여성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도 강조됨. 여성은 농촌에서 상속,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으며, 이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.

| 장기적 비전 달성을 위한 제안 |

장기 비전	제안
① 미래의 디지털 농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정 목표들에 자원을 집중 • 농촌혁신허브를 통한 지역 디지털 생태계 구축 • 디지털 전환의 중간자 및 지역 활동가 지원 •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빠른 지역에 대한 법적인 지원
② 유럽 농촌의 미래를 위한 그린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의 그린 아젠다 달성을 위한 지방분권화 지원 • 다양한 참여자들이 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도록 독려 • 강력하지만 유연한 정책을 통한 방향 설정 및 투자 활성화
③ 회복력 있는 농촌의 미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여 농촌의 다양성과 다각화를 유지 •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농촌의 변화 적응과 지역, 광역, 국가, EU의 네트워크 형성 • 청년 및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로 농촌공동체를 활성화
④ 공정하고 포용적인 농촌의 미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비스 접근성, 유연한 농촌 공간, 법 및 제도 등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필요 • 거버넌스, 홍보, 정보 공유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유도 • 바람직한 사례들에 대한 공유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1.08.30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10.): 유럽

2 유럽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현황²⁾

- 유럽연합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약 10여 년간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.
 - 2018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른 속도로 아시아 내에서 전파되고 있으며, 2021년 7월에는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발병하였음.
 - 반면, 유럽연합에서는 2014년에 발병한 이후로 2021년까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유럽연합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, 야생멧돼지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으나,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돼지 농가까지 퍼지는 경우는 적게 나타나고 있음.

| 유럽연합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(건) |

국가	2019		2020		2021	
	야생멧돼지	사육 돼지	야생멧돼지	사육 돼지	야생멧돼지	사육 돼지
폴란드	2,477	48	4,156	103	2,147	71
리투아니아	464	19	230	3	102	-
라트비아	369	1	320	3	195	2
에스토니아	80	-	68	-	44	1
루마니아	693	1,728	906	1,060	850	1,119
헝가리	1,605	-	4,052	-	2,499	-
불가리아	165	44	533	19	194	4
벨기에	482	-	3	-	-	-
이탈리아	62	1	42	-	5	-
슬로바키아	27	11	388	17	1,380	7
그리스	-	-	-	1	-	-
독일	-	-	403	-	1,466	3
계	6,425	1,852	11,101	1,206	8,884	1,207

- **[회원국별 발생 및 규제현황]**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발생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, 각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에서도 규제와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.

2) 유럽의회 농업 및 농촌개발 위원회의 "Update on African swine fever situation in the EU"(2021.9.1.)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committees/en/agri/home>).



국제 농업 정보(2021. 10.): 유럽

- **(벨기에)**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빠른 속도로 대처하여, △야생멧돼지들을 관리하고, △울타리를 만들고, △발병 지역을 좌표화하는 등 빠른 대응과 협력을 통하여 축산농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지 않았음.
 - **(독일)** 2020년 9월부터 약 2,000여 건의 멧돼지 사이에서의 발병이 관측되었으나, 사육되는 돼지들에게서는 2021년 7월 이후에 3건 외(폴란드와의 경계에 있는 두 지역)에는 발생하지 않았음.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Zoning 및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.
 - **(폴란드)**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. 기존에는 3개의 클러스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나, 추가로 한 곳의 클러스터에서도 발생이 관찰되어, 돼지열병 관련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2021년 4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는 Zoning을 운영하고 있음.
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수준에 따라,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. Restricted zone III는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, Restrctited zone II는 야생멧돼지들 사이에 발생한 지역, Restricted zone I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지 않는 곳이나, 필요에 의해 설정한 경계(완충) 지역임.
 - 안전한 거래와 타 지역의 사육 중단을 방지하여 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됨.
- **[해결과제]** 유럽연합의 동물 건강 관리 정책은 안전한 교역을 위한 발판이며,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.
- 유럽연합 및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, 특히 소규모 농가에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.
 - 야생멧돼지 관리, 여행객 등 인간을 매개로 한 전염 방지, 유럽연합의 Zoning 시스템을 국제 교역 파트너에게 공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함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1.09.13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